

1950~60년대 월간대중지 『野談』 연구*

김병길**

1. 문제제기와 선행연구사 검토
2. ‘野談’ 잡지의 계보학
3. 새로운 편집체제와 콘텐츠의 변주

국문요약

본 연구의 대상은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지 『野談』이다. 월간 형태로 10년 이상 발간된 『野談』은 전문오락지로 대중적 인기가 대단히 높은 잡지였다. 이러한 흥행의 비결에는 여러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터, 잡지의 텍스트 구성 및 편집체제와 해당 콘텐츠의 대중적 소비 메커니즘 양자에 걸쳐 이를 해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표가 있다.

1950년대 『野談』(希望社)은 1930년대 『月刊野談』(癸酉出版社) 및 『野談』(野談社)과 계보상의 씨줄, 그리고 1950년대 대중전문 잡지의 융성이 라는 동시대적 문맥의 날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본고는 『野談』(希望社)의 매체적 특성과 해당 콘텐츠의 대중적 소비 메커니즘을 구명하기 위해 위의 두 방향에서 동시적 접근을 시도했다. 즉, 전범에 해당하는 전 시기 잡지들과의 비교 분석에 더불어 정사(正史)와 대응되는 야사(野史) 내지 외사(外史)의 문학화 작업이 1950년대에 최고조로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8476)

**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조교수

성행한 원인, 역사가 오락물로서 광범하게 소비되면서 야기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식민 시기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야담문학의 계보도 작성이 가능해졌다. 둘째,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역사서사물 간 관계 특성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실체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주제어: 역사, 야담, 저널리즘, 계보학, 대중성)

1. 문제제기와 선행연구사 검토

본 연구의 대상은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지 『野談』이다. 『野談』은 1955년 7월호 창간을 기점으로 1965년 4월까지 발간된 오락지로 대중적 인기가 대단히 높은 잡지였다. 야담과 실화는 물론 사회와 사담에서부터 역사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전물과 역사물로 구성된 이 잡지는 월간 형태로 10년 이상 발간되었다. 이러한 흥행의 비결에는 여러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터, 잡지의 텍스트 구성 및 편집체계와 해당 콘텐츠의 대중적 소비 메커니즘 양자에 걸쳐 이를 해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행의 역사문학 일반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야담’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1950년대 잡지 『野談』에 관한 기존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최근 1950~60년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해당 시기 소설문학의 생산과 소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중지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동향에도 불구하고 야담, 사화, 사담 등의 역사담물과 역사소설 텍스트의 재생산 및 대중적 소비 현상은 의식적으로 간과되거나 외면 받고 있다.

‘야담’을 위시한 역사문학이 주변부 하위문학으로 취급되어온 저간의

사정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일 터이다. 역사문학의 간판 격이라 할 ‘역사소설’이 본격문학에 한참 못 미치는 통속소설로 경시되어 온 내력을 생각건대, 한갓 옛날이야기의 재탕쯤으로 여겨지는 ‘야담’을 그 제목으로 내건 잡지가 연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자료 접근에 따르는 어려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발행되어 온 잡지의 이력을 놓고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분량이 연구대상으로 상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여러 제약이 따른다. 필자의 조사 결과 자료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절호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일부 호는 망실되었다. 현존하는 자료도 관리가 부실하여 온전한 재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담’으로 통칭되어 온 역사담물은 그 연원이 유구할 뿐만 아니라 전 근대문학과 근대문학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가교이기도 하다. 일찍이 18~9세기 야담집에서 선별된 야담들이 현토체나 현토체에 가까운 국한문 혼용체의 형태를 띠고서 『靑邱野談』, 『實事蔥談』, 『大東奇聞』, 『靑丘彙編』 등의 제하로 ‘조선서관’에서 출간된 바 있다. 근대적인 출판 시스템 속에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다. 잡지라는 좀 더 상업화된 매체로서 1930년대 『月刊野談』(癸酉出版社)과 『野談』(野談社)은 이를 순한글체로 번역하고, 단순한 이야기에서 소설적 흥미와 구성을 통해 변형¹⁾함으로써 그 유통과 소비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 1950년대 중반 ‘希望社’의 『野談』이다. 이렇듯 한국의 근현대 역사문학사에서 『野談』(希望社)은 주요한 결절점의 하나다. 역사전기물과 장형의 역사소설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역사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

1)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96, 51~52쪽.

며 전개되었다면, 다른 한 축은 역사담물의 주 무대였던 이들 잡지였다. 1950년대 『野談』(希望社)의 출현은 그 전통을 과시하는 증거이자, 그 역사가 갈무리되는 시점을 적시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1960년대 중반에 『野談』이 폐간된 이후 대중적 인기를 구가한 역사담물 대중잡지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²⁾ 그 배경이야 복잡다단할진대, 야담문학의 대중적 쇠락 현상과 관련하여 『野談』(希望社)의 의의가 조명되어야 할 이유는 이로써 충분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野談』(希望社)에 수록된 작품들의 특질과 해당 잡지가 당시 대중적으로 인기리에 소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논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전제로서 『野談』의 시대적 좌표와 주변 문맥에 대한 탐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통시적 층위에서 1930년대 『月刊野談』 및 『野談』(野談社)과의 계보학적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즉, 앞선 시대 유사 잡지들과 이를 전범 삼아 탄생한 1950년 『野談』(希望社)과의 계통적 유사성 및 단절적 국면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공시적 층위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野談』이 대중독물로 환영받게 된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 전반의 지형에서 역사물 대중지로서 『野談』의 독자적 위상을 가늠해보는 일이 그 구체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2) 1986년 2월 창간된 『史談』이라는 잡지가 1950년대 『野談』지의 전통을 계승한 예라 할 수 있다. 이 잡지의 발행인은 『野談』을 발간했던 김종완이었으며, 출판사는 『野談』의 '希望社'가 이름을 바꾼 '희망출판사'였다. 『史談』은 1988년 2월호까지 희망출판사에서 발간되다 보건신문사로 출판사가 바뀌면서 잡지명이 『歷史春秋』로 바뀐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라라면 같은 해 7월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

첫째,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의 변성은 당대 사회문화적 특성과 심층적으로 연동되어 있을 터, 이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필자의 역량 너머의 일이기도 하려니와 본 연구의 핵심 논점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연구의 대전제로 필수적인 논의 사안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 성과들을 적극 참조함으로써 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둘째, 『野談』(希望社)의 대중성과 전문성, 그리고 독자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 주요한 콘텐츠의 문학적 완성도를 가늠해보는 것이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 10여 년에 걸쳐 발간된 잡지의 방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선별적 작품 분석은 불가피한 방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野談』에 게재된 작품을 대상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발간한 『傑作野談選集』 수록작을 주요한 분석 대상 텍스트로 상정하고자 한다.

1930년대 양대 야담 잡지 『月刊野談』과 『野談』(野談社)에 관한 연구는 그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 중 대다수는 『月刊野談』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³⁾ 『野談』(野談社)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간 시기에서 앞서는 『月刊野談』을 야담문학과 근대적인 전문 매체 간 결합의 시발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두 잡지를 포함하여 근대 야담문학 전반으로 연구 범주를 확대한 경우 전대 야담문학과의 연속성과 변별성, 야담문학의 대중성, 그리고 그 갈래 및 전개 양상 등 세부 주제와

3) 정부교, 「근대 야담의 서사적 전통과 대중 지향적 변모: 『월간야담』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이동월, 「『월간야담』의 전대 여성관련담 개작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339~367쪽./김민정, 「『월간야담』을 통해본 윤백남 야담의 대중성」,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81~207쪽./유인혁, 「『월간야담』 연구-1930년대 야담과 '조선적인 것'의 대중화」,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접근 방법이 다채로운 것을 볼 수 있다.⁴⁾ 두 잡지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본격적인 비교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근대적 제도 내에서 양 잡지가 문화 상품으로 존재한 방식과 위상에 주목한 차혜영의 논의⁵⁾가 그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대상과 방법은 다양하나, 야담의 근대적 성격과 관련하여 잡지라는 매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이쉽게도 이들 선행연구는 하나 같이 그 대상을 식민시기의 야담문학으로 제한하고 있다. 야담문학의 생산과 소비가 오롯이 이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대성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일시 발현되고 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해방 이후 야담문학의 전개 양상에 관한 고찰이 미해결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사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본 연구의 대상인 1950년대 『野談』(希望社)에 관한 연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이 잡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이봉범의 연구⁶⁾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1950년대 대중지의 지형과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 선상에서 단편적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논의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의 변성 속에서 두드러진 야담문학의 전반적인 득세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4)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회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47~85쪽./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0, 민족문화사학회, 2002, 146~177쪽./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화』,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336~364쪽./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3~129쪽./ 이승운,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논총』 6, 한국문학회, 2010, 5~35쪽.

5)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상허학보』 8집, 상허학회, 2002, 71~97쪽.

6)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397~454쪽.

잡지 간 상호관련성에 주목함으로써 섬세한 분석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대중지에 대한 연구의 물꼬를 텃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유의미한 시도이자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정사(正史)와 대응되는 야사(野史) 내지 외사(外史)의 문학화 작업이 1950년대에 최고조로 성행한 원인이나 역사가 오락물로서 광범하게 소비되면서 야기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구체화할 논의의 중심에 연구의 미답지로 남은 '希望社'의 『野談』지가 놓여 있는 바, 그 전범에 해당하는 1930년대 『月刊野談』 및 『野談』(野談社)과의 비교 분석이 자연스러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野談' 잡지의 계보학⁷⁾

『月刊野談』의 발행인 윤백남은 창간호 「卷頭言」에서 “알팍한 現代文明으로서 두름한 朝鮮在來의 情緒에 잠겨보자 그리하여 우리의 이저진 아름다운 愛人을 그속에서 차져보자.”⁸⁾는 독자 제위에 보내는 제안을 통해 잡지 발간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권두언만으로는 『月刊野談』 창간의 기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간호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朝鮮野談全集 第四卷不日出來’라는 제하의 광고에 앞서 게재된 사고(社告) 성격의 글⁹⁾에서 확인된다. 과거 조선에 관한 지식을 건설하고 해박하게, 그리고 정세하게 최대한 수

7) 이후 논의에서 별도 출판사 표기가 없는 『野談』은 1950년대 '希望社' 발간본을 지칭함.

8) 윤백남, 「卷頭言」, 『月刊野談』, 癸酉出版社, 1934. 10, 9쪽.

9) 『月刊野談』, 癸酉出版社, 1934. 10, 98쪽.

집하고 가다듬어 널리 전하는 데 출판사의 지향이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합명회사로 법인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이에는 조선에 관한 문헌을 천발(闡發)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 『月刊野談』의 ‘癸酉出版社’는 단 기간에 『朝鮮野談全集』 제4권을 발간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성공한 출판사였다. 그 같은 자신감에 힘입어 역사물 전문대중지인 『月刊野談』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朝鮮野談全集』의 발간을 통해 확인된 대중의 역사 지식에 대한 요구를 고스란히 잡지 발행으로 이어감으로써 상업적 성공을 기대한 셈이다. 이렇듯 잡지 창간호에 게재된 사보에 『月刊野談』 창간의 실질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 바, 당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역사물 전문 출판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주도한 ‘癸酉出版社’의 근대적인 출판 감각을 목도하게 된다.

『月刊野談』이 역사물 대중전문지로서는 유일했던 잡지계에 한 해 뒤 김동인은 『野談』(野談社) 창간을 통해 경쟁구도를 만들어낸다. 익히 알려진 대로 철저히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취해진 김동인의 잡지계 진출의 속내는 창간호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宣言」을 통해 우회적으로 피력되고 있다. 지루한 여행 시에,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젊은 부부 간의 대화 시에 필요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잡지가 편집된 것이라는 내용이 그 요지다. 아울러 세간의 취미 가운데 건전치 못한 취미가 많음을 통탄하던 것도 잡지 창간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 건전한 이야기 잡지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野談』(野談社)이 기획된 바, 김동인은 “어느것 하나 실지식과 취미의 두가지를 아울리지 않은것이 없이 첫장부터 끝장까지 안보시지 못할 기사만으로 채웠노라고 자신하”고 있다. 발행인 김동인이 직접 나서 밝히고 있는 『野談』(野談社)지의 이 같은 창간 선언은 앞선 『月刊野談』과 비교할 때, 그 상업성을 한층 더 노골화

한 것이었다. 이는 과거 조선에 관한 지식을 일반에 널리 전파하려는 목적 하에 “橫으로 豎로 事實로 考證으로 解釋으로 地理로 史蹟으로 直進, 躍進”하고자 한다는 『月刊野談』지 발간 ‘癸酉出版社’의 출판 이념과 표면상으로는 구별되는 면모이다. 『月刊野談』이 역사 지식의 전파를 전면 에 내세운 것과 달리 김동인의 『野談』(野談社)은 그와 동일한 비중에서 ‘취미’를 강조한다. 물론 이때 거론되는 ‘취미’가 단순히 ‘지식’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김동인의 말처럼 ‘건전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경시될 만한 가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문맥상 이때의 ‘취미’가 흥미의 요소를 기대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둔 가치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취미’라는 용어의 등장은 1920년대 중반 창간된 ‘趣味實益雜誌 『別乾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담을 위시한 역사담물 게재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던 『別乾坤』은 ‘취미’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는 저급한 오락거리가 아닌 역사와 문학, 무용과 음악, 박물관, 동물원, 활동사진, 극장 등 당대 첨단 의 근대적 교양에 가까운 개념이었다.¹⁰⁾ 김동인이 사용한 ‘취미’라는 용어는 앞선 1920년대 대중잡지 『別乾坤』이 지향한 ‘취미’와 그 함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 김동인이 『野談』(野談社) 창간 선언에 부쳐 ‘실지식’과 ‘취미’를 강조했던 사정이 ‘취미’와 ‘실익’을 표방했던 『別乾坤』을 전범 삼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宣言』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발견된다. “이 잡지는 여러분께 그달그달의 건전한 취미와 이야기를 제공하는것이 목적인지라 할수있는대로 계속물을 피하기로 하였습니다.”와 “여러분께 『다음호를 껍 사야할 의무』를 면하여 드린 셈이 올시다.”라는 대중잡지의 전형적인 광고 수사학이 그것이다.

10) 이경돈, 『『別乾坤』과 近代趣味讀物』, 『대동문화연구』 4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56쪽.

김동인의 『野談』(野談社) 창간으로부터 정확히 20년 후이자 폐간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希望社'는 동명의 잡지 『野談』을 창간한다. '月刊大衆誌'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 『野談』의 발행인 김종완(金鍾琬)이 밝힌 창간의 배경은 매우 낮익다. 바빠지고 넓어진 생활의 바탕을 반듯이 유지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과 안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野談』은 그러한 문화생활을 이룩하도록 기여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¹¹⁾ 앞서 김동인이 1930년대 『野談』지 창간호의 「宣言」에서 밝힌 이른바 '건전한 취미론'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실제로 『野談』(希望社)은 창간 이후 "읽는 중에 陶醉하고 읽고나면 知識된다"¹²⁾와 같은 문구를 통해 광고함으로써 앞선 시대 잡지들과의 계통적 유사성을 견지해나갔다. 특히 해당 시기 한국에서는 유일한 역사서사물 잡지라는 자부심 속에서 작성된 창간호의 다음과 같은 편집후기는 1950년대 『野談』(希望社)이 철저히 1930년대 『野談』(野談社)을 벤치마킹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다.

『야담』(野談)-제목이 가르키는대로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사화(史話), 전설(傳說), 민화(民話)들로 책을 엮었습니다. 놀라운만한 지나간 사실(史實), 고개가 숙여지도록 아름다운 옛날부터의 전설,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의젓한 민화-모두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읽고 즐기시며 또 읽고 느끼시기를 깊이 바랍니다.¹³⁾

'癸酉出版社'의 『月刊野談』에서 시작하여 '野談社'의 『野談』을 거친 후 '希望社'의 『野談』으로 부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야담문학의 잡지 매체를 통한 재생산 구도는 이처럼 유사한 창간 이념 아래 계보적 특질

11) 김종완, 「창간사에 대(代)하여」, 『野談』, 希望社, 1955. 7, 25쪽.

12) 「읽는 중에 陶醉하고 읽고나면 知識된다」, 『경향신문』, 1955. 12. 19.

13) 「책을 엮고나서」, 『野談』, 希望社, 1955. 7, 274쪽.

을 이어갔다. 각각의 잡지가 내세운 이념적 가치로 보자면 ‘朝鮮知識(공리) ≡ 실지식 ≡ 문화생활’로의 한 축, ‘대중적 취미 ≡ 취미 ≡ 휴식과 안위’로의 다른 한 축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이 양 가치의 길항을 동력 삼은 전개가 곧 한국 근현대 야담문화사의 실질적인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세 잡지는 모두 ‘역사지식과 ‘재미’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향점을 조화시킴으로써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선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 잡지는 ‘야담’의 세부 양식들을 다변화하는 매체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그 차이를 부감하는 일은 1950년대 『野談』의 문학사적 좌표를 용이하게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세 야담 잡지의 계보적 특질은 세부 양식에 따른 편집체계의 유사성에서도 확인된다. 각각의 창간호를 준거로 이를 살펴보면, 『月刊野談』에는 전기(傳記), 만담(漫談), 기담(奇譚), 야화(夜話) 등이 주요 콘텐츠로 등재되어 있으며, 『野談社』의 『野談』에는 소한록(消閑錄), 역사서 번역물, 창작(創作), 시(詩), 군담(軍談), 역사소설 등이 실렸다. ‘史話와 傳說과 野談의 集大成’¹⁴⁾으로 창간호를 광고한 ‘希望社’의 『野談』에는 앞서 두 잡지에 비해 훨씬 다양한 세부 양식 텍스트들이 게재되는데, 목차에 타이틀로 내걸린 양식 명의 일부를 나열해보면 만화(漫畫), 야화(野話), 사상연애연재소설(史上戀愛連載小說), 비담(秘譚), 애화(哀話), 전기소설(傳記小說), 일사(逸事), 전(傳), 일화(逸話), 여화(餘話), 사기초록(史記抄錄), 사화(史話), 비화(秘話), 사전(史傳), 애사(哀史), 고대소설, 수기(手記), 야화(夜話), 기담(奇譚), 시(詩) 등이다.

이러한 양식성은 세 잡지 모두에서 호를 거듭해가며 그 외연이 점차 넓어지는데, 잡지명 ‘야담’이 가지는 장르적 불안정성을 그대로 대변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月刊野談』의 창간호에서부터 게재되기 시작한

14) 『동아일보』, 1955. 5. 20.

독자투고 광고는 그 간접적인 증거의 하나다. “우리月刊野談은滿天下讀者와한가지趣味를맛보려는史迹의野談化인까닭으로讀者의投稿를환영합니다”¹⁵⁾라는 광고 문구가 그것인바, 이를 통해 잡지사는 제한된 필자의 빈약한 콘텐츠를 보완할 통로를 마련하는 가운데 독자 견인을 위한 잡지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해당 광고는 독자의 투고가 가능한 구체적인 양식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인물(人物), 전설(傳説), 기담(奇談), 신화(神話) 등이 그것으로 초창기 『月刊野談』이 염두에 둔 야담의 세부 글쓰기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를 이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고는 『月刊野談』이 잡지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실제로 독자투고 광고는 이후에도 계속되며, 22호에 실린 「一金一百圓 懸賞原稿 大募集」이라는 사고(社告)에 이르러서는 ‘야담’의 양식적 특질이 명시되기도 한다. 『月刊野談』이 규정한 야담의 요건은 첫째로 역사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 둘째로 문학적 문체가 있어야 할 것, 셋째로 읽어서 공리가 있어야 할 것, 넷째로 대중적 취미가 있을 것이었다. ‘공리와 취미를 겸장한 역사문학’이라는 말로 정리될 이 같은 정의는 한 해 뒤 창간된 『野談』(野談社)의 규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김동인은 『野談』(野談社) 창간 선언문에서 그 세부 편집 체계와 관련하여 “문에 창작 옛말 사화(史話) 일화(逸話)등등에서 순전히 취미있고 이야기로 될만한것만을 택하”¹⁶⁾였다고 밝히며, 이후에도 그와 같은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野談』(野談社) 역시 『月刊野談』의 독자투고 광고와 유사한 「寄稿募集」 광고를 창간호에서부터 싣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시된 야담의 세부 양식은 김동인이 거

15) 「投稿歡迎」, 『野談』, 野談社, 1935. 11, 97쪽.

16) 김동인, 「宣言」, 『野談』, 野談社, 1935. 11, 160쪽.

론한 내용과는 외견상 사뭇 다르다. 김동인이 언급한 ‘문예와 ‘창작’은 이후 『野談』(野談社)의 전개 양상을 보건대, 역사소설과 단편소설을 의식한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고모집 광고는 그와 같은 양식 대신 ‘傳說과 ‘野談’, ‘逸史’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다시 ‘옛날 조선의 모양을 나타낼 만한 것’으로 포괄해 제시했다. 전문 필자가 아닌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한 기고모집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둔 것이라 할 수 있으려니와, 야담이라는 기표의 부유(浮游)성 내지는 그 기의의 개방성을 이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듯 ‘野談社’의 『野談』은 『月刊野談』의 체제를 일부 모방하면서도 독자적인 양식들을 제안하는 방향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키워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문적인 역사 지식의 소개였다. 그 첫 번째 콘텐츠는 『三國遺事』의 한글 번역이었다. 김동인이 『宣言』에서 창간호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운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月刊野談』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野談』(野談社)의 야심찬 기획이었다. ‘野談社’는 공적 역사의 대중화를 꾀한 이 번역물의 연재 서문에서 “조선 옛날의 역사로 상고함과 아울러 이야기로도 쏘한 흥미진진한 자로서 애독”¹⁷⁾의 기대감을 표한다. 비슷한 요청을 김동인은 창간 선언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그 무게중심이 역사지식보다는 대중의 흥미로운 독서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창간호에 게재된 내용이 신시시대(神市時代)의 일이라 싱거운 감이 없지 않으나 제2호부터는 삼국시절의 온갖 기담, 로맨스, 일화 등이 게재될 것’이라 부연하면서 『三國遺事』를 역사적 가치보다 문학(취미문학)적 가치가 더욱 높은 텍스트로 평가¹⁸⁾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독자들이 손에 땀을

17) 『野談』, 野談社, 1935. 11, 34쪽.

18) 김동인, 앞의 글, 같은 쪽.

흘리며 읽게 되리라는 김동인의 확신에 찬 발언이 일종의 광고로 읽히는 것은 『月刊野談』에 비해 『野談』(野談社)의 상업적 성격이 더 강화된 탓일 것이다.

1950년대 ‘希望社’ 『野談』의 경우 앞서 열거한 대로 창간호에 제시된 양식만도 근 20여 종이 넘는다. 후속 호에는 새로운 양식 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야담’이라는 명칭이 아우를 수 있는 역사담물의 외연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를 이로써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들 상이한 양식 명이 변별적 자질에 따른 것이 아닌 매우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예컨대 야화(夜話)와 야화(野話), 그리고 야사(野史)의 차이는 불분명하기 그지없다. 이들 텍스트들이 사화(史話) 내지는 사담(史談)과 또한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기란 더더욱 요령부득이다. 결론적으로 역사서에서부터 역사소설에 이르는 방계 역사물 모두를 ‘야담’이라는 이름으로 호출한 셈이다.

문제는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는 위와 같은 양식 명을 잡지 편집자가 그토록 남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면적으로는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편집 전략의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史上戀愛連載小説’, ‘史上哀戀’, ‘古代宮中悲戀哀史’, ‘純情悲戀古代小説’ 등의 경우 그 바탕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서사물이라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으나 애써 ‘연애’, ‘애연’, ‘비연애사’, ‘순정비연’ 등의 타이틀을 이용해 수사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어휘 조합의 타이틀이 개별적인 양식성을 고려한 명칭일 리 만무하다. 단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가 실천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나타난 잡종적 명칭이라는 것이 사태의 진실에 더 가깝다. 그런 맥락에서 1950년대 『野談』은 전 시대의 야

담 잡지들에 비해 훨씬 상업적으로 계산된 편집체계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詩)는 물론이거니와 고금만상(古今漫想), 고대풍속만화, 야담만화(野談漫畵)와 같은 다종의 만화, 그리고 '藝苑의 옛香氣'라는 화보에 이르기까지 '希望社'의 『野談』은 앞선 시기의 야담 잡지들과는 속된 말로 그 레벨을 달리하는 대중적 면면을 과시한다. 이렇듯 '역사'라는 최소공약수와 '문학'이라는 최대공배수를 매개로 1950년대 『野談』은 역사전문지이기 앞서 대중종합지로서의 완숙미를 그 창간호에서부터 한껏 발산하고 있다. 일명 잡지시대로 불리는 1950년대 이미 『希望』이라는 잡지로 대중적 성공을 거둔바 있는 '希望社'의 편집 노하우가 이에 한몫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전 시대 야담 잡지들이 타산지석이 된 결과라 할 것이다.

1950년대는 잡지저널리즘이 신문저널리즘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을 발휘한 시대였거니와, 그 양상이 오히려 신문을 능가하는 문화적 권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¹⁹⁾ 실제로 이 시기는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잡지를 매개로 한 대중문학이 가장 번성했던 때다. 이는 비문학의 범주가 대중문학, 경향문학, 리얼리즘문학, 사소설적 경향 등을 포괄한 것에서 점차 대중문학이 비문학의 대명사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²⁰⁾ 이봉범에 따르면 1950년 대중지들의 경우 문학편집으로 한정할 때 세 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야담, 사화(史話)와 같은 전근대적 문학이 번성한 사건이다. 이 시기 『野談』, 『野談과 實話』와 같은 야담전문지는 물론이고 대중지 대부분이 야담, 사화, 야화, 전설 등을 고정란으로 편성해 게재한

19)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397쪽.

20)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90쪽.

다. 이들 텍스트는 『月刊野談』이나 『野談』(野談社)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1930년대, 『白民』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유지됐던 해방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대중지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야담 및 사화는 1950년대 내내 혼동과 무질서를 동반한 채, 또 문학의 범주에서 배제된 채(하위문학으로 취급되는 것을 포함해) 대중지를 거점으로 무한 증식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60년대 『野談全集』(전15권, 新太陽社, 1961)을 비롯한 여러 야담전집류로 수렴되었다. 이에 대응해 야담과 사화 작가군이 새롭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야담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김동인, 윤백남, 차상찬, 이보상 등 작고작가를 비롯한 백대진, 홍효민, 윤고종 등이 대중지를 통해 문학적으로 부활하였다. 그리고 최종준, 김정, 박찬홍 등 신진 야담 전문작가가 등장해 각광을 받았다.²¹⁾

1950년대 『野談』은 한편으로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흥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주도하면서 성장했다. 물론 이에겐 신문과 잡지가 경쟁과 공조의 관계를 통해 저널리즘 일반의 분할 구도를 형성했던 배후 문맥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체적인 지형을 조감하는 가운데 대중전문지 흥행의 요인을 따져보아야 할 볼 필요가 있다. 전 시기에든 그러했듯이 1950년대 잡지들은 ‘야담’으로 통칭되는 역사담물을 광범위하게 게재하였다.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잡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흔한 콘텐츠가 역사담물이었기 때문이다. 『野談』은 이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상업적 승부를 건 잡지였다는 점에서 동시대 여타 잡지들과 변별된다. 『野談』의 후발주자로 『野談과 實話』와 같은 잡지가 창간되기도 하였으나, 전문성 면에서 『野談』에 한참 못 미

21)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431~432쪽.

치는 것이었다. 텍스트 함량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아리랑』과 같은 대중오락지가 『野談』에 필적할 만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제한된 수의 작가들이 활약했던 상황에서 이들 대중지 역사담물의 필자가 빈번히 겹쳤기에 잡지들 간 문학적 성취도는 그리 큰 낙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개별성과 전문성을 잡지명에서부터 표면화한 『野談』이 역사담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野談』은 그 소비 메커니즘과 독자 수용의 양태에서 동시대 여타 잡지들과 외견상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그 이면에서는 차이를 꾀했다. ‘希望社’가 주력했던 종합대중지 『希望』의 성공에 이어 ‘잡지연쇄’ 전략의 하나로 창간된 것이 『野談』이었다. 1950년대는 당대 유력한 잡지출판 자본이 같은 경영자 밑에 특정 목표독자층을 겨냥한 잡지경영의 다각화를 꾀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잡지연쇄’를 통해 잡지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촉진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이 잡지연쇄는 특정 목표독자층을 겨냥한 특수지 중심의 잡지 지형을 형성하면서 분야별 잡지매체의 경쟁구도를 야기하기 마련이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창간된 『野談』은 『希望』과는 그 예상 독자층이 달랐고, 따라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전략 역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전문지로서 『野談』의 창간에 거는 ‘希望社’의 기대지평이 『希望』과는 달랐던 것이다.

1950년대 대중지들은 편집기획의 갱신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에로(erotic), 스릴러(thriller), 엽기(獵奇) 등 대중오락지의 통상적인 콘텐츠 외에 시사물, 고전독물, 문예물, 르포르타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새로이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된 콘텐츠를 내놓아야 했던 후발 잡지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영화스토리에서 만화, 국극, 고전스토

22) 이봉범, 앞의 글, 404쪽.

리, 탐정물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관심을 자극할 만한 모든 통속 서사물이 이에 망라되었다. 그 결과 대중잡지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면서 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에 이른다. 특히 그 과정에서 『아리랑』의 고전스토리의 인기가 높았거니와, 『野談』 창간은 이에 자극받은 바 크다.²³⁾ 그 기저에 전 시기부터 꾸준히 형성되어온 역사담물에 대한 대중의 강렬한 소비 욕구가 자리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앞선 시대 '野談'지들의 성공사례는 '希望社'의 『野談』 창간에 확신을 준 전사였다고 할 수 있다.

『野談』 발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1957년, 그러니까 창간으로부터 약 2년 후 한 일간지에 『大衆雜誌의 危機 八月號의 月評을 兼하여(下)』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된다. 당시 대중잡지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기사는 대중잡지들 내용이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일부에서 강력한 입법조치가 운운될 정도로 대중잡지의 통속성이 시비되고 있다는 것이 해당 기사 필자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는 팔리지 않는 잡지보다는 팔리는 잡지를 만들자니 자연 그렇게 된다는 잡지 편집자들의 공통된 변과 아울러 내용이 대담하게 저속한 잡지일수록 잘 팔리는 상황을 앞서 전한다. 이어 잡지가 상품인 이상은 독자의 구미에 되도록이면 맞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렇다고 독자에게 비굴하게 영합할 것까지야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강영수라는 필자가 쓴 이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당대 주요 대중잡지들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그는 『新太陽』, 『女苑』, 『希望』, 『明朗』, 『主婦生活』, 『野談』을 대표적인 대중잡지들로 거론하면서 그 각각의 특장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한다. 『新太陽』의 경우 문예란의 양

23) 이봉범, 앞의 글, 410쪽.

보다 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충실을 기대하고 싶다는 평가를, 『女苑』의 경우 여성잡지로서 독보적인 면모는 약여(躍如)하나 정치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몰각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希望』의 경우는 소설과 영화 관련 오락잡지로서 『明朗』과는 정면충돌하고 『아리랑』, 『三千里』와도 혼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다. 한편 『野談』에 대해서는 먼저 경쟁 상대가 적다는 점을 제일의 장점으로 거론한다. 한국의 독자층에게는 역사서사물이 구미를 당기는 콘텐츠인데, 현재로서는 『野談』에 필적할 만한 유사한 성격의 잡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가 이백환의 가격 역시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재미챌바퀴 돌 듯 재탕을 되풀이할 수도 있는 기사 공급 문제를 가장 큰 난점으로 거론한다.²⁴⁾

그로부터 다시 한 해 뒤인 1958년 잡지계는 전연 다른 국면에 접어든다. 대중오락지가 퇴세일로를 걷고 교양지들이 창간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난 것이다. 여전히 『彗星』, 『野談』, 『三千里』, 『野談과 實話』, 『이야기』, 『興味』, 『實話』, 『明朗』, 『아리랑』, 『話題』 등의 오락지는 독자대중에 영합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과 자체 모순으로 인해 다수의 잡지들은 쇠락의 길에 접어들기에 이르렀다. 관능적이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다분히 선정적이고 성적인 소재 중심의 잡지들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기자의 말처럼 이미 별 차이 없이 반복되는 내용에 독자 대중은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²⁵⁾ 이러한 대중오락잡지의 쇠퇴 경향과 맞물려 교양종합지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문예지의 기반이 확보되기에 이르면서 백과사전을 비롯한 사전류와 세계문학 및 한국문학의 전집 간행 또한 봄을 이루

24) 강영수, 「大衆雜誌의 危機 八月號의 月評을 兼하여(下)」, 『경향신문』, 1957. 7. 22.

25) 「學術敎養誌發展傾向 大衆娛樂誌는 頽勢一路」, 『동아일보』, 1958. 6. 5.

었다. 바야흐로 르네상스를 맞은 출판계의 이 같은 성장은 잡지계의 정화 구도 속에서 가속화된 결과였다.

직전까지 무수히 많은 잡지들이 명멸하는 가운데서도 『希望』, 『明朗』, 『아리랑』, 『野談』, 『野談과 實話』 등 이른바 대중오락잡지만은 판로의 실력이 비교적 굳건했었다. 그러던 것이 1958년 들어와서는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며 고경(苦境)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높아진 기대치, 즉 독서의 질적 향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自由世界』, 『思潮』, 『韓國評論』, 『自由公論』 등의 발간으로 교양종합지의 전성기가 열리면서 대중오락지의 쇠퇴는 일층 가속화되었다.²⁶⁾ 이렇듯 신문과 대중지, 오락지를 거점으로 증식된 통속(대중)소설이 주류적 경향으로 대두한 데 대항해 순수문학진영은 순수문학의 제도적 규범화를 한층 강화해갔다. 순수문학의 권위를 선양하는 동시에 대중문학을 철저히 배제 및 부정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순수(문학)/통속(비문학)의 분할 구도가 더욱 고질화되기에 이른 것이다.²⁷⁾

1958년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에 접어든 대중오락 잡지계 전반의 상황에서 『野談』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대중오락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신한 콘텐츠 계발에 애초부터 한계를 노정하고 있던 『野談』의 경우 그 위기의식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野談』의 생명력은 강했다. 『野談』은 1960년대 중반까지 발행을 이어가면서 우리 근현대 잡지계 역사상 가장 장수한 역사물 전문잡지로 남았다. 전반적인 출판계의 불황에도 『野談』이 그토록 오랜 기간 발간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역설적이게도 1962년 8월호 『野談』 발행이 불가능하게

26) 『整理一九五八年 集大成刊行物の「분」』, 『경향신문』, 1958. 12. 14.

27)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화회, 2010, 290쪽.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그 단서를 만나게 된다. 당시 여름철에 들면서 구독자가 줄어 경영난에 허덕이던 대부분의 월간 오락잡지사들은 몇 달 전부터 사실상 휴간에 들어간 상태였다. 통화개혁으로 용지 구입에 애로가 생겼으며, 종전의 금전 거래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삼대 월간오락지 ‘三中堂’, ‘希望社’, ‘新太陽社’ 중 ‘三中堂’을 빼고는 큰 난관에 봉착했다. 『野談』을 발행하는 ‘希望社’는 8월호 조판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수금난과 용지난으로 발행치 못하고 있었다.²⁸⁾ 그런데 『野談』이 폐간된 것은 이로부터 세 해 뒤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를 거르기는 했지만 발간을 이어 간 것이다. 앞의 기사 내용처럼 『野談』은 1950년대 중반과 같은 호황을 1960년대 들어와서는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野談』이 창간될 무렵 부분적인 경쟁관계에 있던 대중오락지들이 출판시장이 침체되면서 그간 다수 퇴출되었고, 고전 역사물을 다룬 잡지로는 『野談』이 사실상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비록 그 수가 줄었다하나 확실한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野談』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그 같은 상황으로부터 마련되었던 셈이다. 이는 『野談』이 주요한 상품으로 내세운 역사담물이 1960년대에 독자대중으로부터 열렬히 환영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담물이 소수 고정 독자들의 전유물로 남게 된 사태를 반증한다. 『野談』의 굴곡진 역사가 이처럼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었던 내막이 이에 있다.

28) 『錢荒...시드는 出版界-月刊娛樂誌 잇달아 閉門地境』, 『동아일보』, 1962. 6. 21.

3. 새로운 편집체제와 콘텐츠의 변주

『野談』(希望社)은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 혹은 양식의 역사담물들이 펼쳐는 경연장이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선 대중의 눈길을 매혹적으로 사로잡아야 했다. 기존의 식상한 관습적 글쓰기로는 경쟁력을 지닐 수 없기에 역사소설과 야담으로 대표되는 역사담물은 『野談』를 통해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특히 역사소설에 비해 그 양식적 규약성이 느슨한 야담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야담으로 통칭할 수 있는 기존 양식에 더하여 그로부터 변주된 형태의 현대적 야담의 등장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이 같은 경향을 전제로 장르적 양식성을 기준할 때 『野談』(希望社)의 게재물은 크게 소설, 야담, 그리고 기타 텍스트로 일차 분류가 가능하다.

위의 대분류 아래 세부적인 양상과 특징들을 짚어보면, 먼저 대표적인 대중독물로서 『野談』 전면에 배치된 소설의 게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앞선 시대 '野談' 잡지들과 확연히 변별되는 양상이다. 특히 '名作歷史小說', '人氣連載小說', '傑作連載小說'과 같은 타이틀을 내건 장기간 연재가 주목할 만하다. '探偵小說', '武俠小說', '推理小說', '傳說小說'의 경우처럼 특정 소재 혹은 기법을 명시한 타이틀이 내걸린 경우도 있다. '異色小說', '悲戀小說', '時代小說' 등 서사의 성격을 암시하는 타이틀의 작품들이 다채롭게 실리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金鰲新話』, 『九雲夢』, 『沈清傳』과 같은 '고대소설'은 물론 『金瓶梅』와 같은 중국 고전소설이 게재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野談』의 간판 소설로 독자 배가의 일등공신은 역사소설류였다. '歷史小說', '李忠武公傳記小說', '史上戀愛連載小說', '奇人列傳', '歷代奇僧傳', '高僧傳記', '時代力作小說'과 같은 광의의 역사소설이 다수 게재 및 연재되었다.

역사소설로 명명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月刊野談』에도 소설로서의 구성과 문체, 그리고 표현을 두루 갖춘 장형의 야담이 연재된 바 있다. 그러나 그리 많지 않아 잡지 구성의 핵심 콘텐츠로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담에서 역사소설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정확히 말하자면 야담과 소설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글쓰기였다. 그에 반해 『野談』에는 ‘역사소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설로서의 특질을 두루 갖춘 작품들이 빈번하게 게재되었다. 이들 역사소설 작품에는 고정 지면이 할당되었는데, 상당수의 작품이 장기간 연재되었다.

야담의 경우는 양식적 세분화를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月刊野談』만 하더라도 야담의 하위 양식에 대한 의식이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 『野談』에 이르면 다종다양한 타이틀과 함께 마치 세포 분열처럼 여러 형태로 분화된다. ‘奇譚’, ‘哀話’, ‘悲話’, ‘快譚’, ‘佳話’, ‘怪譚’, ‘美譚’, ‘逸話’ 등이 이색적인 수사적 타이틀을 앞세워 새로운 야담의 출현으로 선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담(奇譚)류의 게재가 가장 빈번했는데, ‘復讐奇譚’, ‘娶女奇譚’, ‘妖夢奇譚’, ‘鬼國奇譚’, ‘怪性奇譚’, ‘豊艷奇譚’, ‘戲謔奇譚’, ‘神仙奇譚’, ‘蓄財奇譚’, ‘冥界奇譚’, ‘接客奇譚’, ‘名商奇譚’, ‘哲人奇譚’, ‘愛戀奇譚’, ‘婚姻奇譚’ 등 소재에 따라 그 타이틀은 무한 변주되었다. ‘기담(奇談)’ 다음으로 ‘쾌담(快談)’ 및 ‘괴담(怪譚)’이 『野談』의 지면을 주도했다. ‘至誠快譚’, ‘受侮快譚’, ‘仁俠快譚’, ‘俠盜快譚’, ‘殉義快譚’, ‘至誠快譚’, ‘殉義快譚’, ‘豪俠快譚’ 등의 타이틀을 앞세운 쾌담과 ‘幽靈怪譚’, ‘獵奇怪譚’, ‘妖物怪譚’, ‘名畫怪譚’, ‘鬼女怪譚’, ‘珍奇怪譚’, ‘劍客怪譚’ 등의 괴담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졌다. 쾌담과 기담은 역사지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친연성을 갖는 야담류다. 특히 기담의 경우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주요한 소재가 되는데, 흥미 유발 그 자체가 목적인 독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화(哀話) 역시 적지 않은 텍스트가 게재되었다. ‘殉忠哀話’, ‘亡國哀話’, ‘戰亂哀話’, ‘僧侶哀話’, ‘宮中哀話’, ‘觀相哀話’ 등 기담류와 유사하게 그 소재가 매우 다양했다. 애화(哀話)와 성격상 지근거리에 있는 비화(悲話)의 게재도 빈번했다. ‘宿命悲話’, ‘落照悲話’, ‘亡國悲話’, ‘忠臣悲話’, ‘羅末悲話’, ‘純情悲話’, ‘烈女悲話’, ‘義憤悲話’ 등이 이에 속한다. 애화와 비화는 명칭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 상이한 성격의 야담류는 아니었다. 이들은 흔히 망국의 한을 다룬 경우가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이 주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다. 앞서 소설에 관한 논의에서도 ‘史上戀愛連載小說’이 언급된 바 있듯이 애정담 혹은 연애담은 소설과 야담 공히 필자와 독자에게 환영 받은 모티프였다. 설령 애정담이 서사의 중심 모티프가 아니더라도 삼각관계의 연애서사는 이들 역사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의 서사 모티프였다. 이 계통의 야담에는 ‘劍客哀戀’, ‘青春悲恋’, ‘妖夢戀譚’, ‘悲恋哀史’, ‘戀愛悲譚’, ‘史上哀戀’, ‘古代宮中悲戀哀史’, ‘悲壯戀譚’, ‘愛戀奇譚’ 등의 타이틀이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남녀 간의 애정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 ‘염화(艶話)’나 ‘염사(艶事)’라는 타이틀의 사용이 잦았다. 이 계열의 야담에는 때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좋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가화(佳話)’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다. ‘敬親佳話’, ‘血痕佳話’, ‘英君佳話’, ‘精艷佳話’, ‘友誼佳話’, ‘節妓佳話’, ‘美德佳話’, ‘賢妻佳話’ 등이 그 예다. 가화와 근거리에 있는 야담이 ‘미담(美談)’이다. ‘義理美譚’, ‘玉工美譚’, ‘義俠美譚’, ‘諫親美譚’, ‘婦德美譚’, ‘貞烈美譚’, ‘因果美譚’ 등 적지 않은 수의 이 미담류 야담이 가화와 함께 『野談』의 지면을 차지했다.

야사(野史)를 소재로 한 야담 역시 그 비중이 결코 소소하지 않았다. 대개 ‘비화(秘話)’로 불린 이 계열의 야담은 전 시대에 사외사(史外史), 즉 외사(外史)로 취급되던 내용을 흥미롭게 서사화한 텍스트들이다. ‘閨

房秘話, '宮中秘話', '壬亂秘話', '反正秘話', '燕山秘話', '建國秘話', '戰國秘話', '胡亂秘話' 등이 그 예로 宮中秘史 '麗末秘史', '興亡秘史', '善政秘錄' 등의 타이틀을 차용한 야담 또한 그 성격이 비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궁중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뒷이야기들이나 특정 정치적 사건의 배후가 이들 야담의 주요한 소재였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만으로도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편집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였을 것이다. 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공적인 역사 바깥의 역사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도 흥미롭게 재구성된 독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콘텐츠였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야사, 곧 '항간에서 사사로이 기록한 역사를 전거 삼고 있다는 사실인데, 실상 이 같은 전제를 독자대중이 심각히 고려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野談'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집어든 순간 거기에 실린 역사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독자들이 진지하게 물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야담을 대표하는 양식의 하나였던 '사화(史話)와 '사담(史譚)'은 신생 야담류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²⁹⁾ 사화나 사담의 경우는 '新羅史話', '百濟史話', '誣獄史話', '甲年史話', '爭權史話', '新羅史譚', '破字史譚', '土禍史譚' 등 특정 시기를 지칭하거나 내용의 성격을 선제적으로 알리는 형태의 타이틀로써 그 변별적 자질을 드러냈다. '座談史話'처럼 텍스트의 담화 형식을 타이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있고, '興味史話'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필자가 참여한 기획물도 있다. 아예 '葉篇史話'나 '이달의 史話와 같이 고정란을 통해 지속적으로

29)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사화(史話)'는 '설화처럼 꾸며진 역사 이야기'를, '사담(史譚)'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칭한다. 일찍이 근대적인 매체에 등장한 이래 양자는 특별히 구분됨 없이 사용되었다.

제공된 예도 있다. 비록 줄었다고는 하나 ‘野談’ 잡지에서 사회와 사담이 갖는 비중이 여전히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역사서사물 외에도 『野談』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32장면만화’, ‘색쇄만화’, ‘특집만화’, ‘특선만화’, ‘추천만화’와 같은 타이틀을 내세운 만화가 매호 게재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사에 관한 질의응답 코너인 ‘國史問答’이나 ‘古史解靨’, 유머나 퐁트 코너인 ‘들은풍월’, 짧은 야담을 위한 ‘寸篇古譚’, ‘토막기사’나 ‘흥미기사’ 등의 고정란도 존재했다. 매호의 가장 앞자리를 ‘표지화’, ‘목차화’, ‘권두화’에 이어 인물들의 화보로 장식하였는데, 대개 그 대상은 국악 관련 인물이었다. 잡지의 성격이 역사물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통문화로서의 국악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제목붙이기현상만화’, ‘역사소설현상모집’, ‘문예작품현상모집’과 같은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차호에 게재함으로써 콘텐츠 공급의 한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예작품현상모집’을 통해 많은 작품들이 『野談』의 지면을 장식하면서 야담 창작의 양적,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의 문맥 아래서 『野談』이 대중전문지로 성격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오락적 독물로서 통속성에 기반한 텍스트였다는 함의를 자연스럽게 수반한다. 과연 그 같은 폼하적 시선에서 『野談』이 자유로울 수 없는가의 여부는 해당 잡지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의 면면을 확인할 때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질러 말하면 『野談』지에 발표된 작품들의 편차는 대단히 크다. 그리고 그들 작품이 가지는 양식적 특성을 변수로 개입시킬 때 단일한 기준 아래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내 알 수 있다. 문제는 다기한 장르의 이들 작품을 문학적 관점만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은 단순

히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문학의 외피를 두른 역사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평가의 준거를 들이대 기늠할 수 없는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해당 텍스트들에 대한 대중의 독서욕 역시 문학적 완성도보다는 흥미로운 역사지식의 습득에 더 경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지평이 『野談』에 수록된 다종의 텍스트들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배제하게끔 만드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서사적 완성도가 높은 텍스트일수록 대중적으로 호평 받았던 사례들이 많은 사실을 감안할 때, 『野談』의 대중성과 전문성, 그리고 독자성을 분석하는 일과 문학적 성취를 기늠해보는 일이 결코 다르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타당성을 방증하듯 '希望社'는 잡지 『野談』에 기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1961년 『傑作野談選集』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선집의 발간은 일차적으로 해당 잡지가 적시한 장르적 구분과 분류의 결과이며, 이차적으로 6여 년 간 축적된 콘텐츠의 선별적 집적에 다름 아니다. 물론 콘텐츠의 재활용을 통한 이윤 추구의 목적이 더 본질적인 기획 의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사의 선집 발간이 갖는 의의는 결코 소소하지 않다. 대중성과 문학성이 만나는 지점, 1950년대 대중지의 사회문화적 좌표, 해방 이후 역사담물의 재생산 및 대중적 소비 메커니즘의 지표로서 위 선집은 다면적인 진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중하 세 권의 단행본으로 엮인 『傑作野談選集』의 각 권은 '傑作中篇', '懸賞文藝作品', '精選短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傑作中篇'의 경우 역사소설이 대부분이며, '懸賞文藝作品'과 '精選短篇'은 야담과 단편소설이 뒤섞여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선집은 『野談』이 거둔 문학적 성취의 바로미터다. 특히 '傑作中篇'과 '精選短篇'의 일부 소설은 그 정점에

있는 작품들로 『野談』의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野談』 게재 텍스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로 기성작가 작품의 재게재 혹은 재연재를 들 수 있다. 잡지사 입장에서 보자면 흥행성이 검증된 텍스트로 손쉽게 지면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형적인 야담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글쓰기로서 소설 창작의 높은 진입장벽이 그와 같은 결정의 또 다른 요인이었을 터다. 윤백남의 『回天記』(『자유신문』, 1949. 4. 10~9. 23.), 이광수의 『異次頓의 死』(『조선일보』, 1935. 9. 30~1936. 4. 12.), 김동인의 『雲岷宮의 봄』(『조선일보』, 1933. 4. 26~1934. 2. 17.), 『해는 地平線에』(『매일신보』, 1932. 9. 30~1933. 5. 14.) 등이 『野談』에 재연재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작고작가이며, 해당 작품들이 이미 신문에 연재된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듯 편집자는 해당 작품의 연재에 ‘名作歷史小說’, ‘人氣連載小說’, ‘傑作連載小說’과 같은 타이틀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생존 작가들의 작품들이 재게재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1959년 『現代文學』 4월호에 발표되었던 박용구의 『漢江流域』, 1947년 『協同』(朝鮮金融組合聯合會) 6월호와 『金融組合』(朝鮮金融組合聯合會) 7월호에 연재된 바 있는 채만식의 『興夫傳』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재편집하거나 개제하여 재게재한 경우도 있다. 박종화의 『名將鄭起龍』과 김동인의 『餘愁』가 이에 해당한다.

박종화의 『名將鄭起龍』은 기록적 전거에 바탕한 전기(傳記) 형식의

30) 작고작가들의 야담 역시 심심치 않게 게재되었다. 김동인의 『般若의 죽음』(『月刊野談』, 癸酉出版社, 1935. 3.)을 『자루속의 般若』로 개제하여 재게재한 것이나 『月刊野談』(癸酉出版社, 1936. 12.)에 이미 게재된 바 있는 윤백남의 『可憐杜十娘』을 재게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두 사람의 야담이 빈번하게 재게재되었다.

중편 역사소설이다. ‘정기룡’라는 인물의 행적을 다룬 이 작품은 일종의 영웅서사로서 이미 독자에게 알려진 바 있는 텍스트였다. 그 원전은 박종화가 1954년 9월 13일부터 1957년 4월 18일까지 『조선일보』에 총 946회에 걸쳐 연재한 『壬辰倭亂』이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정치가들의 부패상과 왜적의 포악성을 ‘이순신’, ‘계월향’, ‘권율’, ‘논개’ 등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壬辰倭亂』은 신문연재와 거의 동시에 ‘을유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연재가 종료된 1957년 총6권의 단행본 발간이 마무리되었다. 이렇듯 대단한 인기를 구가한 이 작품에서 제3장 ‘씩트는 微光’ 중 ‘秋風嶺의 鄭起龍’ 편을 바탕으로 ‘정기룡’과 관련된 여타 연재 부분을 재편집한 「名將鄭起龍」을 『野談』이 1957년 7월호부터 10월호에 걸쳐 연재한 것이다. 이 일련의 이력은 『野談』의 콘텐츠 발굴과 가공, 그리고 소비 메커니즘의 전형적인 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김동인의 「餘愁」는 1935년 『中央』(朝鮮中央日報社) 1월호에 전재된 「落王城秋夜譚」이 그 원본이다. 이후 「落王城秋夜譚」은 1941년 「王府의 落照」로 개제되어 ‘每日申報社’에서 출간한 단행본에 「배따라기」, 「女人」 등과 함께 수록된다. 그리고 김동인 사후인 1958년 『野談』 3월호에 「落照悲話」라는 타이틀과 함께 「餘愁」라는 제목으로 게재된다. 작자 사후에 『野談』 편집자가 개제까지 감행하며 재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餘愁」은 「王府의 落照」 해적판이라 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개제 과정에서 이렇다 할 개작은 행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작가 개입이 배제된 『野談』 재게재 과정에 발생한 개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유력한 추측은 재게재에 따르는 식상함을 줄이고 대신 참신한 독물로 선전하고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개제를 택했으리라는 것이다. 독자의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 작고작가의 작품 개제를 놓고 편집자가 크게 고

민했을 리 없다. 잡지사 간 저급한 콘텐츠 경쟁이 점입가경에 이른 당시 분위기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러해야 마땅한 결정 아니겠는가. 실제로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의 슬픔과 변민에 초점을 맞춘 이 작품은 김동인의 탐미주의적 성향이 발현된 예로 역사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³¹⁾ 역사적 현실보다는 ‘노국공주’의 죽음과 그 이후에 야기되는 상황이 서사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 내적 자질이 대중오락전문지로서의 외적인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지점에서 『野談』의 콘텐츠 선정 전략은 정확히 작동했다. 『王府의 落照』를 게재한 『餘愁』의 게재는 바로 그 술한 사례 중 하나였을 뿐이다.

둘째로 기존의 역사소설 작가들에 더불어 박종화, 김팔봉, 김동리, 박용구, 장덕조, 정한숙, 최인욱, 김광주, 조훈파, 정비석 등 당대의 저명한 작가들이 대거 『野談』의 주요 필자로 진출한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작가들이 게재한 작품이 소설에서 전기, 그리고 광의의 야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롭다는 것이다. 야담작가로의 변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오락지의 필자로 참여를 결정하는 순간 해당 잡지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일 터이다. 작가 자신의 의지, 그리고 해당 텍스트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들 작가군의 진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콘텐츠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의 동인이 되었다. 『野談』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주요 필자는 아니지만 채만식과 염상섭의 작품이 게재된 사실은 이색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野談』에 실린 채만식의 작품은 『興夫傳』과 『아시아의 運命』 두 편이다.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된 바 있는 『興夫傳』과 달리 단편 역사소설

31) 송희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건 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350쪽.

『아시아의 運命』은 1955년 『野談』 10월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표된 작품이다. 채만식은 해방 후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배경인 『歷史』(『學風』 2호, 1949. 1.)를 발표한 후 연이어 임오군란(壬午軍亂)을 배경으로 한 『늪은 극동선수』를 1949년 『新天地』 2, 3월호에 발표한 바 있다. 연대기적으로 그 뒤를 잇는 작품이 갑신정변(甲申政變)을 다룬 『아시아의 運命』이다. 이들 세 작품은 피카레스크식 연작형 가족사적 역사소설이다.³²⁾ 식민시대 말기 『女人戰記』를 쓰게 됨으로써 대일협력의 정점에 도달한 채만식은 해방 후 이에 대한 속죄의식에서 『女子의 一生』(1947)을 쓰게 된다. 이 지점에서 역사와 새롭게 대면하기 위해 채만식은 역사소설 창작에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의 하나가 바로 이 세 편의 ‘역사’ 연작이었다. 이 연작은 해방기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의 걸이야기와 그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인 ‘총기 좋은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역사 강담의 속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가족과 민족의 수난사로 창작 시점인 해방기의 혼란한 정치 상황에 조응한다. 채만식은 이 연작에서 세 개의 주요한 연대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정황을 매우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野談』에 게재된 『아시아의 運命』의 경우 ‘김옥균’이 처한 상황을 전하는 장면에서 민태원이 쓴 『甲申政變과 金玉均』(國際文化協會, 1947)을 전거 삼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³³⁾ 역사소설로 이 같은 면모를 지닌 이 작품이 실제 창작 시기로 알려진 1948년으로부터 한참 뒤인, 그것도 작가 사후에 『野談』에 게재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막 창간된 잡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망 있는 작고작가의 유작 발굴이라는 카드를

32) 류종렬, 『채만식의 역사소설 연구』, 『외대논총』 제14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35쪽.

33) 류동규, 『채만식의 해방기 역사소설과 식민지 전사(前史)의 재현』, 『어문론총』 5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540~533쪽.

야심차게 꺼내든 결과였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이 아닐까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의 게재는 『野談』이 거둔 문학적 성취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고 평할 수 있다.

『野談』에 게재된 염상섭의 작품은 1957년 10월호에 실린 단편소설 『金議官叔侄』이다. 이 작품은 일진회의 반대파인 정우회를 끌고 나가며 할 때 ‘일대의 정치가’이자 ‘당대의 지사’로 자처하던 ‘김의관’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한일합방 단행 직전 헌병대에 끌려가 일제에 회유되어 자신의 신념을 버린다. 그 대가로 천황의 사금(賜金)을 받아 귀향 후 일시 윤택한 생활을 누리지만 쓸쓸한 심사와 함께 이내 경제적 곤경에 빠지고 만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에 매어 있는 김의관은 결국 남은 재산과 함께 귀농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나 운동해 보자는 심산으로 송병준의 집사랑에 맥대령을 살다시피 한다. 이러한 김의관의 변절 이력에 담긴 허위의식을 염상섭은 소학교 4학년인 그의 조카 ‘진학’의 비판적 시선을 빌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배경이 한일합방 전후라는 것 외에 딱히 역사소설로서의 색채를 찾을 수 없는 이 작품이 『野談』에 발표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 답은 게재 당시 이 작품에 붙은 ‘시대소설(時代小說)’이라는 타이틀에서 발견된다. 본래 염상섭은 역사소설 창작과 거리를 두었던 작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세대 훨씬 이전의 역사를 다룬 『金議官叔侄』은 예외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野談』의 편집자에게 이 작품이 주목 받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역으로 『野談』의 청탁에 염상섭이 해당 잡지의 성격을 고려한 창작을 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작품의 『野談』 게재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野談』이 상정한 역사물의 외연과 그 지평의 모호한 경계가 동시에 적시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역사적 모티프의 광범위한 역사소설류가 다수 게재 및 연재되는 것과 맞물려 중단형의 작품, 즉 단편 및 증편 역사소설이 대거 게재되었다. 특히 이석정, 박용구, 김팔봉, 김동리 4인의 창작이 왕성했는데, 이들의 작품은 거개가 '歷史小說'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게재되었다. 단편 역사소설로는 '만적의 난'을 다룬 이서진의 『功名の私跡』, 신라 화랑과 백제 처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 허문녕의 『斬首된 별애기』, 그리고 백제 의자왕의 딸 '계양공주'의 일화를 그린 김송의 『桂陽公主』가 대표작이다. 증편으로는 연개소문의 둘째 아들 '남건(男建)'을 주인공으로 고구려 멸망사의 일면을 다룬 이석정의 『高句麗橫死』, 허구적 인물 '계창'과 그의 누이 '천절'을 주인공으로 백제멸망사를 다룬 박종건의 『悲愴의賦』,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간의 슬픈 연애사인 김문응의 『樂浪과 好童』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들 작품은 중단편 가릴 것 없이 허구적 요소가 지배적이라는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 그 담화의 형식이 소설적 의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역사소설로 평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적 전거에 따른 서사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자면 야담에 가까운 텍스트들이다. 식민시기 일부 잡지에 단편 역사소설이 게재된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다수의 작품이 안정적으로 게재된 것은 『野談』이 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형의 역사소설 연재를 추구했던 신문과 상대적인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 잡지계 매체전략으로 볼 수 있는 일면이다.

중단편 역사소설을 주로 발표한 작가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김동리다. 『願往生歌』, 『情義關』, 『國土王巨人』, 『青海鎮大使』, 『義士金陽』, 『良禾娘哀話』 등 김동리는 상당수의 단편 역사소설을 『野談』에 최초 혹은 재발표하였다.³⁴⁾ 김동리의 유일한 증편 역사소설 『阿尸良記』 또한

34) 후일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엮은 작품집이 『김동리 역사소설』(智炤林, 1977)이다.

『野談』에 최초로 게재되었는데, 그간 『阿戶良記』로 잘못 알려져 있던 작품이다. ‘興亡秘史’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이 작품은 ‘아리랑국, 곧 아나가야(阿那伽耶)’의 마지막 왕인 ‘취등왕(吹登王)’이 강방대국(強邦大國)을 꿈꾸며 육가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다 실패로 돌아가고 신라에 나라를 잃게 된다는 망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사는 아리랑국의 ‘가리공주(嘉尸公主)’와 승려 신분으로 불교 전파를 명분삼아 아리랑국에 침자로 잠입한 신라 화랑 ‘신발(信勃)’이 펼치는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른 내적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역사적 전거를 후경화하고 고귀한 신분의 인물들이 엮어내는 비극적 사랑을 전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의 전형적인 연애담 계보를 잇고 있다. 이러한 서사문법은 『野談』이 추구한 대중성에 오롯이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野談』의 주요 필자로 참여함으로써 김동리의 성공적인 역사소설계 진출은 이뤄질 수 있었으며, 이는 『野談』과 같은 전문오락지의 출현이 단편 역사소설 번성의 결정적 도약대였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증언한다. 그것은 대중문학으로서 역사문학과 잡지 저널리즘의 공모적 관계를 재차 확인케 만드는 물증이기도 하다.

이렇듯 『野談』은 역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다방면의 대중문화를 지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잡지였다. 그러나 소재를 역사에서 끌어왔다거나 단순히 텍스트의 배경이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게재된 콘텐츠 모두를 역사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역사는 어디까지나 수사였을 따름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역사지식을 전하는 데 『野談』 창간과 발간의 대의명분이 있었으되, 엄밀히 말해 거기에 게재된 텍스트들은 그 같은 목적을 스스로 방기하거나 이반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대중잡지로서 『野談』의 독자 견인 방향이었다는 점이다. 『野談』의 독자는 그 같은 저널리즘을 추수했고, 잡지사는 이를 강화하는 추세를 지속적

으로 이어갔다. 독자들의 역사 소비 욕망을 『野談』이 발견, 자극한 셈이다. 혹은 독자들의 내적 요구를 『野談』이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고 해도 크게 틀리거나 다른 말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三千里』, 『別乾坤』, 『月刊野談』(癸酉社出版部), 『現代文學』, 『史談』, 『歷史春秋』, 『野談』(野談社), 『野談』(希望社) 『協司』, 『金融組合』, 『中央』, 『동아일보』, 『경향신문』

2. 논문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3~129쪽.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진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화』,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336~364쪽.

김민정, 『『월간야담』을 통해본 윤백남 야담의 대중성』,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81~207쪽.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0, 민족문화사학회, 2002, 146~177쪽.

류동규, 『채만식의 해방기 역사소설과 식민지 전사(前史)의 재현』, 『어문논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531~552쪽.

류종렬, 『채만식의 역사소설 연구』, 『외대논총』 제14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317~363쪽.

박종홍, 『공민왕시기와 작가의 시각:〈왕부의 낙조〉, 〈다정불심〉, 〈대도전〉의 대비 검토를 통한-』, 『문학과 언어』 10,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9, 307~330쪽.

유인혁, 『『월간야담』 연구-1930년대 야담과 ‘조선적인 것’의 대중화』,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경돈, 『『別乾坤』과 近代趣味讀物』,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49~287쪽.

이동월, 『『월간야담』의 전대 여성관련담 개작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339~367쪽.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제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61~305쪽.

_____,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397~454쪽.

이승운,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논총』 6, 한국문학학회, 2010, 5~35쪽.

-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47~85쪽.
정부교, 『근대 야담의 서사적 전통과 대중 지향적 변모: 『월간야담』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상허학보』 8집, 상허학회, 2002, 71~97쪽.

3. 단행본

-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r magazine “YADAM (historical tale)” in 1950s-1960s

Kim, Byoung-Gil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adership General Education Institute)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he representative magazine in the 1950s, “YADAM (historical tale)”. “YADAM” published monthly in the form of more than 10 years as a specialized entertainment magazine was highly popular. The lots of factors involved in the such popular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make explanations to both the text of magazine editing configuration and system and mechanism of the content of public consumption.

“YADAM” in the 1950s is located in the intersection where the woof on genealogy - “WOLGAN YADAM” and “YADAM” in the 1930s and the longitude on same time-the golden era of public magazines in the 1950s were weaved. This study was both approaches tried to bring light “YADAM”'s media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 of public mechanisms. That is a review of the reasons that switch of official and unofficial history to the literature was prevailing in the 1950s and social and cultural impacts that history consumed broadly as entertainment caused through the former times magazine comparison analysis.

First, Writing genealogy of a historical tale literature ranging from colonial to a period of 1960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this study. Second, in the 1950s magazine journ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tive things history books have laid the foundation.

(Key words: History, Historical Tale, Journalism, Genealogy, popular appeal.)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18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